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상점 형편에 맞게 노숙자에게 서비스	보르도
산업·경제	3	임업에 로봇 활용 등 7개 메시지 담은 '산림 장래전망'	도쿄
사회·복지	5	디지털 포용정책의 하나로 '미 와이파이' 시범사업	런던
환경·안전	8	'기후변화 대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정 지원	에드먼턴
	10	'베를린 녹색도시 현장' 온라인 공개토론·워크숍	베를린
	13	저소득층 대상 오래된 냉장고 절전형으로 무료 교체	로스앤젤레스
도시계획·주택	14	다기능형 사업소로 이용 등 빈집 활용 사례집 발간	오사카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상점 형편에 맞게 노숙자에게 서비스

‘노숙자·주민 공생클럽’ 가입상점들…집보관, 음식·생활용품 제공

프랑스 보르도市 / 사회·복지

- 프랑스 보르도市의 시민단체 ‘르 까리옹’(Le Carillon)은 노숙자와 지역주민의 공생을 추구하는 클럽으로, 이곳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상점은 각기 형편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음식·생활용품 제공, 집 보관, 전화·와이파이 이용 등)를 노숙자에게 베풀며 그 이상을 실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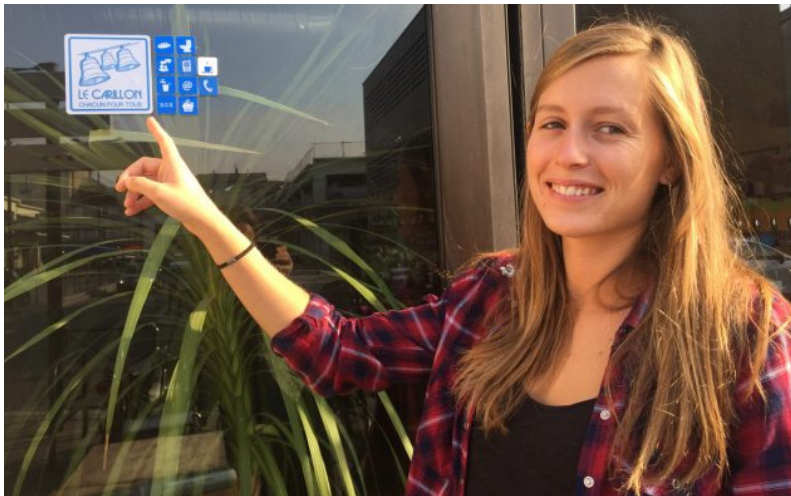
- 개요

- 르 까리옹은 노숙자와 지역주민과 상인·기업이 공생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2015년 설립
 - 보르도 외 파리, 릴, 낭트, 리옹, 마르세유, 뮌헨의 총 7개 도시에서 활동
- 노숙자와 공존과 노숙자 이미지 변화의 2가지 목표를 추구
 - 첫째, 노숙자를 우리 주변에서 밀어내기보다는 공존을 지향
 - 둘째, 노숙자 중에는 직업을 가졌어도 집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차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는 만큼, 노숙자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
- 클럽의 로고인 3개의 종은 각각 주변 상점과 지역주민과 노숙자를 뜻함
- 노숙자 구호단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러 자선구호단체를 보완하는 개념
 - 노숙자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연대체
- 한 달에 한 번 노숙자와 상점주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날을 마련해 친목을 도모
 - 노숙자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움
 - 이 외에도 음악·춤·제과 등의 각종 아틀리에를 마련
- 페이스북 같은 SNS와 지역신문의 기사를 활용해 봉사자를 모집

- 내용

- 이 클럽에 가입한 상인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는 서비스를 노숙자에게 제공하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음
 - 하나는 상점에 이미 구비 중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 가게 내 휴대폰 충전, 화장실 사용, 상황에 따라 집 보관해주기, 무료 와이파이 이용, 국내전화 이용, 마실 물 제공, 우편물 대신 받기, 전자레인지 사용 등

- 다른 하나는 스폰서나 개인의 기부를 받아 가게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지역주민이나 손님이 가게에서 기부할 서비스(음식점은 음식,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 등)를 미리 결제하면, 가게를 찾아온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다른 손님이 결제 후 두고 간 음식·음료나 판매 불가능한 상품 제공, 간단한 응급치료, 옷·신발 무료제공, 로션이나 화장품의 샘플 제공, 신문 열람 등
- 클럽에 소속된 상점은 입구에 르 까리옹의 로고와 함께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픽토그램으로 알려주어 노숙자들이 밖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그림 1] 르 까리옹 설립자 마틸드 보부아가 한 회원 상점 앞에서 로고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 시사점

-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 베풀기를 실천함으로써, 노숙자를 돕는 일은 자선 구호단체가 아니어도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음을 시사
- 노숙자를 사회부적응자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같은 지역주민이나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

<https://www.lecarillon.org/benevole-bordeaux>

<https://www.facebook.com/lecarillonbordeaux/?fref=mentions>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bordeaux-un-reseau-de-solidarite-entre-commerçants-habitants-et-sdf-1537967407>

<http://www.bordeaux7.com/bordeaux-actualites/2018/09/30/carillon-nouveau-reseau-dentraide-bordelais-domicile-fixe>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산업·경제

임업에 로봇 활용 등 7개 메시지 담은 ‘산림 장래전망’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일본 도쿄都는 도민의 공유재산인 산림을 정비하고 목재 이용을 촉진해 도쿄를 다시 ‘나무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 11월 16일 『50년, 100년 후의 ‘도쿄 산림 장래전망’』이라는 제목의 ‘도쿄 포레스트 비전’을 수립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 임업에 로봇 활용, 국산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 장려 등 7개 메시지를 발표
- 개요
 - 풍부한 산림자원의 정비·활용을 목적으로 한 장기계획 수립
 - 도쿄는 대도시이기도 하지만, 다마(多摩)지역 등 숲이 풍부한 지역도 많아 전체 면적의 40%를 산림이 차지
 -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제42회 전국산림축제(全國育林祭)의 도쿄 개최를 계기로 50년·100년 앞을 내다보는 포레스트 비전을 수립하고 7개 메시지를 발표
- 도쿄 포레스트 비전 7개 메시지 주요 내용
 - 1) 임업 활성화의 공익적 효과
 - 꽃가루가 적은 삼나무 종을 심어 꽃가루 비산량을 줄였으며, 물 저장과 CO₂ 흡수 등 공익적 효과도 발생
 - 2) 다마지역 목재산업의 수익성 향상
 - 수령 100년 이상의 도쿄 삼나무와 도쿄 노송나무 등 다마산(産) 목재의 프리미엄 브랜드화로 지역 임업과 목재산업의 수익성 향상
 - 3) 스마트 임업 도입
 - 다마지역 목재의 생산·관리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최신 기술 활용
 - 4)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임업
 - 대형 포유동물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숲을 키워 100년 후에도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울창한 숲을 유지
 - 5) 도서지역의 산업 기반
 - 도서지역 산림은 관광과 특산물 생산 등의 산업기반이자 재해 예방장치

- 6) 도시와 산림이 하나가 되는 도민의 생활
 - 도시와 숲이 어우러진 도쿄만의 라이프스타일 ‘도쿄 포레스트 라이프’ 창출
- 7) 건축물 목재 활용도를 높여 ‘나무의 도시 도쿄’를 조성
 - ‘나무의 나라’인 일본의 수도 도쿄를 ‘나무의 도시’로 만들 전략
 - 구조용집성판(CLT) 등 새로운 목재 건축재료의 개발·활용 장려
 - 철근콘크리트와 목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건축기술 도입으로 주택 외에 사무실·상업시설 등 중·고층 건축물의 목재 활용도 향상
 - 미래 세대를 위한 시설인 보육원·학교 등의 목조화 추진



[그림 1] 스마트 임업 이미지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11/16/04.html>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11/16/documents/04_01.pdf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사회·복지

디지털 포용정책의 하나로 ‘미 와이파이’ 시범사업

영국 런던市 / 사회·복지

- 영국 런던市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을 꾸준히 펼칠 것을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계층(특히, 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 등)에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기본적 디지털 기술(Basic Digital Skill)을 가르쳐주는 ‘미 와이파이’(Mi Wifi) 사업을 시범시행해 긍정적 효과를 확인
- 배경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디지털 포용정책의 지속 추진을 강조
 - 지난 10월 앞으로 4년간의 시정 비전을 발표한 담화문 ‘모든 시민을 위한 런던’(A City for All Londoners)에 수록된 내용
 - 현재 추진 중인 ‘더 스마트한 런던’(Smarter London) 전략과 연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 기술 습득을 돕는 사업을 진행
- 기본적 디지털 기술
 - 디지털 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디지털 활용 기술로, 다음 4가지 기술을 의미
 - 정보 관리(Managing Information)
 -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기술로, 원하는 사이트나 자료·이미지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방법
 - 소통(Communicating)
 -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 거래(Transacting)
 - 온라인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사는 방법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에 앱을 구매·설치하는 법도 포함

- 창조(Creating)
 - 온라인으로 지원서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
 - 기존 이미지·음악·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
- 디지털 소외현상 발생 이유와 문제점
 - 영국 통계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주요 발생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힘
 - 인터넷·디지털 환경에 관심 부족(59%), 자신에게 온라인 환경에 진입할 기술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21%), 컴퓨터 등 장비 가격 문제(9%)
 - 디지털 소외현상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공동체의 문제로 대두
 - 소규모 기업의 23%와 커뮤니티 그룹의 58%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 디지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황
- 모바일 인터넷으로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은 디지털 소외현상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이며,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
 - 모바일 업체 보다폰(Vodafone)은 모바일 인터넷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온라인·인터넷으로 끌어들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88%는 온라인과 인터넷에 관한 마음가짐과 접근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빌려서 사용해본 사람의 78%는 데스크톱PC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보다 인터넷 접근과 정보의 활용이 쉬웠다고 응답
 - 와이파이를 이용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70%는 가정용 인터넷에 견줘 이용요금이 저렴하다고 판단
- 미 와이파이 시범사업
 - 공공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시민에게 빌려주고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젝트
 - 런던 내에서 가장 디지털 소외현상이 큰 지역으로 조사된 루이섬(Lewisham)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진행
 - 시민과 기업·커뮤니티의 기본적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
 - 시정부는 5만 파운드(7,200만 원)를 이 시범사업에 지원

- 시범사업의 성과

- 총 70개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무상 대여
-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인터넷 이용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
- 모든 참여자는 기본 레벨(Basic Level) 이상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추게 됨
- 참여자의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하는 효과 확인



[그림 1] 미 와이파이 홍보 이미지

<https://www.london.gov.uk/what-we-do/communities/digital-inclusion-london#acc-i-53894>

<https://www.london.gov.uk/decisions/add2081-mi-wifi>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환경·안전

‘기후변화 대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정 지원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앨버타 주정부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 지원정책에 더해 시 차원에서 추가 지원금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과 확산에 힘을 쏟은 결과, 2015년 이후 태양광발전설비가 3,100개 늘어나고 발전 용량이 약 29MW 증가
- 배경
 - 앨버타주는 2015년부터 기후변화협약과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절약 지원정책을 시행 중
 - LED 전구 구매에 최대 80%의 지원금 제공
 -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보일러 등)이나 컴퓨터 온도 조절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75캐나다달러(64,000원)를 환급
 - 주택용 단열재, 단열창문, 순간 온수기 등을 시공할 때도 일반적인 견적을 기준으로 1만 캐나다달러(845만 원) 수준의 지원 제공
 -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하는 가정에는 최대 1만 캐나다달러나 총시공비용의 35%를 지원
 - 시정부는 추가 지원금 제공으로 에너지 지원정책을 강화
 - 주정부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원금 와트당 90센트(770원)에 추가로 15센트(130원)의 지원금을 제공
- 프로그램 개요
 - 관내의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교육기관 등이 신청 대상
 -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단일·다가구)과 상업용 건축물 소유주, 공립 중등교육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신청 자격 부여
 - 기존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 증축 설비에 한해 지원금 신청 가능
 - 태양광발전설비는 해당 건물의 전력 요구량 최대 100%를 생산할 수 있으며, 햇빛이 모자란 겨울철에는 앨버타 전력망(그리드)에 연결 가능

- 설치 과정은 업체 선정, 설치, 지원금 신청으로 구성
 - 공인된 태양광발전설비 공급업체 검색 후 선정
 - 규정에 맞게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앨버타 전력망에 연결
 - 지원금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신청
 - 신청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장기간 권리를 소유한 자이어야 하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
- 프로그램 성과
 - 앨버타주는 2015년 이후 태양광발전설비가 3,100개 늘었고, 태양광발전용량이 6MW에서 35MW로 증가
 - 앨버타 태양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효과도 발생
 - 온실가스 배출량 약 50만 톤 감소(승용차 7만 대의 운행감소 효과)
 - 앨버타주는 관내 28개 시에서 60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연간 전력비용 67만 5천 캐나다달러(5억 7천만 원) 이상 절감 예상
- 지원정책 관련 논란
 - 2015년 집권한 중도성향의 신민당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며 탄소세를 도입
 - 주정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을 유지 중이며,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폐기할 계획
 - 2019년 선거를 앞두고 반대 진영인 보수당(UCP)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소세 철회를 첫 번째 공약으로 공표
 - 석유기업을 압박해 미국에 의존 중인 정유시설을 국내에 짓도록 하고, 그 이윤을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는 대안 제시

<http://solar.efficiencyalberta.ca>

<https://www.efficiencyalberta.ca/solar/>

<http://www.digitaljournal.com/news/environment/alberta-s-carbon-tax-and-higher-solar-rebates-under-attack/article/536875>

<https://globalnews.ca/news/4655280/alberta-solar-rebate-increase-november-2018/>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베를린 녹색도시 헌장’ 온라인 공개토론·워크숍

독일 베를린市 / 환경·안전

- 독일 베를린市는 도시의 녹지공간을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의 목소리가 대립하자, 환경보존과 도시개발의 정치적·행정적 지침을 담은 ‘베를린 녹색도시 헌장’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공개토론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워크숍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
- 배경
 - 녹지 개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 합의 필요성 증가
 - 이민자가 많고 인구증가가 빨라 도시 내 녹지 개발 압력이 거센 상황
 - 반대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 이에 따라, 도시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방식을 합의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시정부는 ‘베를린 녹색도시 헌장’을 제정해 녹지의 보존과 개발의 방향성을 정할 계획
 -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정을 수립
- 베를린에서 녹지의 의미
 - 녹지는 베를린의 역사가 담긴 유산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
 - 도시 중심을 흐르는 강과 무수한 숲과 공원은 베를린 근현대사와 연결되는 유산이자,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경치를 구성하는 요소
 - 아름다운 녹지와 자연환경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
 -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녹지
 - 인구증가는 주택 수요를 늘려 녹지의 개발압력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도 증가
 - 고도로 발전한 도시사회에서 녹지는 휴식과 여가, 자연체험, 스포츠와 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
 - 생물다양성과 기후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녹지
 - 녹지는 베를린에 있는 2만 종 이상의 동식물 서식처로 기능
 - 숲과 나무는 도시 기온을 낮추고 지하수를 보존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 주요 내용

- 2019년까지 현장 제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온라인 참여 진행 중
 - 환경·교통·기후보호 부서가 중심이 되고 상원의회·지역관청과 협력
 - 올 8월 상원 결의 후 제안서 제출
 - 현재 첫 번째 온라인 참여가 진행 중이고, 내년 봄에 두 번째를 준비
 - 2019년 중 전문적 콜로키움과 주제별 워크숍 진행 후 시민참여를 거쳐 완성할 예정
- 기본 원칙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존, 강화, 공유, 관리 등
 - 도시 자연환경 보존과 강화
 - 자연환경 인프라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새로운 녹색 공간을 설계
 - 자연환경의 공유와 개인 간 상호 존중
 - 자연환경은 나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교육과 소득 수준, 직업 유무, 시민권 유무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이를 위한 공유자산
 - 모든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 만큼, 상호 갈등을 줄이려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
 - 자연환경의 총체적 관리와 발전
 - 90km²(9천 헥타르)의 녹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보존·관리해야 할 영역
- 주요 세부 논의 사항
 - 1) 기존 녹색도시의 토대 확보·강화: 기존 공원·묘지·농경지 등의 활성화
 - 2) 녹색도시 네트워킹: 산림 구역, 수역, 동식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 강화
 - 3) 새로운 녹색 공간 개발: 거주지 내 녹지·자연체험 공간 개발
 - 4) 회색 인프라의 잠재력 활용: 건물·도로 공간 등의 활용 가능성 검토
 - 5) 자연 존중과 주민 간 배려: 바비큐 그릴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논의
 - 6) 디자인과 사용성 향상: 여가·스포츠 용도에 적합한 자연공간 확대
 - 7) 민간부문: 개인 정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8) 통합계획: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고려
 - 9) 일관된 유지보수와 개발: 기존 보호구역 점검 등
 - 10) 협력 도구 개발과 적용: 협력 파트너, 기금 사용, 계획 평가 등



[그림 1] 베를린 녹색도시 현장 이미지

<https://www.berlin.de/senuvk/umwelt/stadtgruen/charta/index.shtml>

<https://www.berlin.de/sen/uvk/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57116.php>

<https://mein.berlin.de/topicprio/2018-03379/>

<https://www.neues-deutschland.de/artikel/1080521.charta-fuer-das-stadtgruen-kommt.html>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5199957/Gruenanlagen-in-Berlin-Jetzt-sind-die-Buerger-gefragt.html>

<https://www.morgenpost.de/meinung/article215208271/Wenn-Wohnungsbau-gegen-Stadtgruen-ausgespielt-wird.html>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저소득층 대상 오래된 냉장고 절전형으로 무료 교체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환경·안전

-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수도전력국(LADWP: LA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은 저소득층과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력소모량이 많은 오래된 냉장고를 절전형 냉장고로 무료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 주요 내용

- 수도전력국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그램 중 하나
- 저소득층과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력소모량이 많은 오래된 냉장고를 절전형으로 무료 교체

[표 1] 절전형 냉장고 무료 교체 대상

다가구주택·비영리기관	저소득층
- 다가구주택, 혹은 이동주택 주민 - 교육기관 - 시민단체, 종교단체, 커뮤니티 그룹 등의 비영리단체	-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 생계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 지원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해당 개인·단체가 소유한 10년 이상 된 냉장고
 - 교체대상 냉장고는 고장이 없고 미국 전압 규격에 맞는 용량 396ℓ(14ft³) 이상의 제품으로, 현재 사용 중이어야 함
 - 수거한 냉장고는 수도전력국에서 친환경적 방법으로 폐기
 - 교체대상 냉장고의 용량에 맞춰 425ℓ(15ft³)와 510ℓ(18ft³)의 2가지 모델 중 하나를 제공
- 절전형 냉장고로 교체 시 연 60달러(6만 7천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 발생
 - 에너지 스타(Energy Star®)인증을 받은 모델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

https://www.ladwp.com/ladwp/faces/ladwp/residential/r-savemoney/r-sm-rebatesandprograms/r-sm-rp-lowincomerefrigeratorexchangeprogram?_adf.ctrl-state=s7c5sjdff_4&_afLoop=205278517470532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도시계획·주택

다기능형 사업소로 이용 등 빈집 활용 사례집 발간

일본 오사카市 / 도시계획·주택

- 빈집 비율이 17.2%에 달하는 일본 오사카市는 빈집 활용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사례집을 발간함. 빈집 활용 우수 사례로는 장애인 복지 목적의 다기능형 사업소와 관광객용 게스트하우스 등이 수록
- 개요
 - 오사카시의 빈집 비율은 17.2%로 전 일본 평균(13.5%)보다 높은 상황
 - 빈집 증가는 지역 커뮤니티를 약화시키고 마을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등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시내 여러 지역에서 빈집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 복지시설이나 점포 등 주거용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시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빈집 소유자나 빈집 활용을 검토 중인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사례집을 작성
- 빈집 활용 사례: 장애인 복지 목적의 다기능형 사업소
 - 장애인 지원 비영리법인 코나스가 빈집을 다기능형 사업소로 활용
 - 중증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증 환자의 생활요양사업,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립훈련사업에 이용
 - 상가지역 건물 중 오래된 일본 건축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빈집을 이용해 예술활동을 펼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 보호자의 출자, 시민 기부, 시민 채권 발행, 비영리단체(NPO)의 지원 대출 등을 받아 대상 건물과 토지를 구매
 - 장애인·장애 아동의 예술활동 지원, 작품 판매, 미화사업(지역아동시설과 공원), 문화 활동 등 시행
 - 지역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에 힘쓰고 지역 행사나 청소활동 등에 일상적으로 참여

－ 빈집 활용 사례: 게스트하우스

- 조용한 주택지에 있는 70년 이상 된 오래된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도심에서 일본의 옛 주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일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빈집을 개조해 사용
- 되도록 옛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여관업법 준수를 위해 화장실과 목욕탕 등을 변경한 것이 가장 큰 보수
- 역과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많은 인기
 - 일본의 옛 주택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이용객이 많고, 지역주민이 해당 이용객을 역까지 안내하는 등 긍정적 면이 있음
 - 외국인뿐 아니라 옛 주택을 느끼고 싶은 일본인 이용객도 늘어나는 추세
- 전통 주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라는 장점도 있지만, 건물이 오래된 만큼 보수 공사가 잦고 법률상 제약이 많다는 단점이 있음



[그림 1] 빈집 게스트하우스 활용 사례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337763.html>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337/337763/7-8.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